

# '가람 이병기 전집' 11~15권 완간

총 30권 분량 중... 10년에 걸친 근현대 국학자 전집 중 가장 방대한 작업

'가람 이병기 전집' 총 30권 중 11~15권이 최근 완간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4년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위원회(위원장 김익두)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북대 국어국문학과와 해당 학계 교수들, 특히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및 석박사과정생 50여 명이 참여해 2017년까지 전집에 들어갈 자료들의 1차 입력을 마쳤다.

이후 2021년까지 전집 중 1~10권이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간행됐다. 5권에는 가람 선생이 남긴 국문학 저서와 논문, 평론 등의 학술적 저서들이 담겨 있다.

간행위원회는 1~10권의 간행경비는 전북대학교, 전북도·전주시·익산시가 총담했고, 이번에 출간된 11~15권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간행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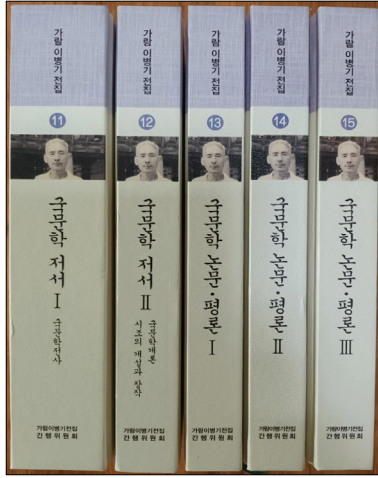
처음에는 약 15권 분량으로 예상하고 진행했

으나, 전집 자료들을 조사 정리한 결과 총 30권 분량으로 늘어나 비용 총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2년 전주시가 간행비를 지원해 이번에 가람의 저서·논문·비평에 해당하는 11~15권이 간행됐다.

현재 이 전집은 전체 30권 중 아직도 그 뒷부분 15권이 간행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익산시가 협의 중이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전북대 김익두 교수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북도·전주시·익산시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절반의 고비를 넘겼다"며 "우리 전북이 낳은 최고의 국학자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전집이 하루빨리 완간돼 선생의 업적이 하루빨리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가람 이병기 전집 11~15권 발간

## '문재인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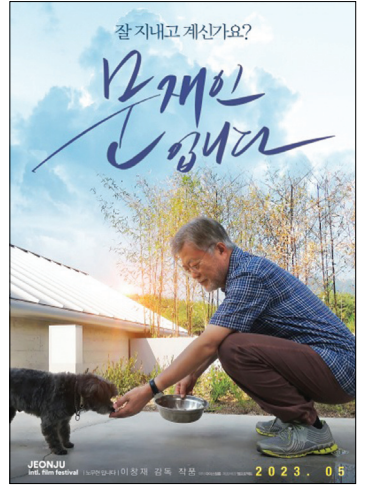
영화 '노무현입니다' 이창재 감독 신작 다큐멘터리... 퇴임 후 삶 담아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전주시네마프렉트 부문의 세 번째 상영작으로 이창재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를 11일 공개했다.

이창재 감독의 이번 작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의 삶, 평산마을에서 사는 인간 문재인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 감독은 "정치가 싫었던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되는 길을 택했을까, 권력을 내려놓은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정치인을 다루는 작품은 대개 권력을 잡는 과정이나 재임 기간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지만 이 작품은 그 관습의 반대편에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감독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선보여 18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한편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는 오는 5월 극장 개봉이 확정됐다. /뉴스시

## '박물관 속 바이올린' 첫 공연 익산서 펼쳐진다

국립지방박물관문화향연... 15일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니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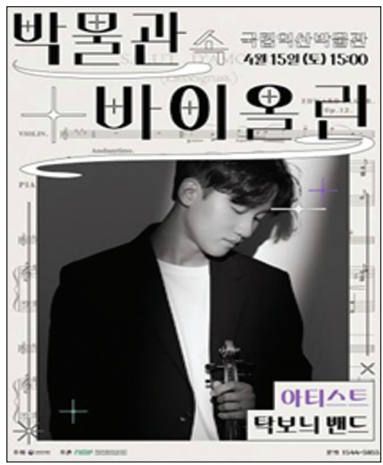
2023년 국립지방박물관문화향연 '박물관 속 바이올린' 첫 공연이 오는 15일 국립익산박물관 역사터의 거울(지하 광장)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국립지방박물관문화향연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대표적인 공연 사업 중 하나로, 올해는 박물관 속 바이올린이라는 주제로 각 국립박물관의 전시와 대표 유물을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박물관 속 바이올린'에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연주자로 클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니가 무대에 오른다. 탁보니는 유튜브에서 연주 영상이 화제가 돼 총 6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 진행했던 탁보니 단독콘서트 'Over the rainbow' 또한 전석매진을 달성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아티스트다.

탁보니 밴드는 이번 공연에서 '쇼팽의 에튀드 Op. 10, No. 1', '내 사랑 내 곁에', '오즈의 마법사 OST' 등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곡을 선보인다. 또한, 공연과 함께 국립익산박물관 대표 소장품 '차미'와 연계한 공연으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탁보니는 "2023년도 국립지방박물관문화향연 '박물관 속 바이올린' 공연의 첫 번째 주자로 선정돼 설레고 기쁘다"며 "공연에서 '차미'를 소개하고 그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택해 연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나 물고기의 꼬리를 연상시키는 모습인 '차미'를 보고 우아함을 느낄 수 있어, 마치 쇼팽의 에튀드 10-1이라는 곡이 닮아 있는 것 같다"며 "쇼팽의 곡도 굉장히 우아하고 한마리의 새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인데 이 차미의 유물이 연상이 되는 곡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15일 오후 3시 국립익산박물관 역사터의 거울(아외 광장)에서 1시간 동안 열리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로컬 관광 여행상품 공모전 진행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3 전북 로컬관광 여행상품 공모전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1박 이상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워케이션, 웰니스, 윈도심, 생태·해양 테마 총 4개 분야로, 이 중 1개 분야의 1박 이상 체류형 여행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도내 여행사 또는 관광콘텐츠를 보유 하거나 운영 중인 도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전문성, 사업 경쟁력, 사업의 구체성, 홍보 및 상품화 전략, 지역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5개 기업에는 상품 고도화 및 시범상품 운영, 홍보마케팅, 팜투어비 등 최대 2,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h123@jta.or.kr)로 제출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날은 춥지만 미술관에 가고 싶어' 기획전 성료

전북문화관광재단·전북도립미술관 공동기획전 4000여명 관람객 찾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과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공동 기획한 '날은 춥지만 미술관에 가고 싶어'가 도민들의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전북예술회관에서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 총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특히 이애선 관장은 이번 전시의 총괄 기획자로서 전시 개막과 중간에 도슨트(Doctor)로 참여해 전시의 풍성함을 더했다. 또한 준비에 함께한 도립미술관 4명의 화예인턴(김다미, 나여진, 오유림, 윤영돈)이 기획한 전시실의 주제 역시 돋보였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기획전은 재단

과 도립미술관이 문화예술 유관기관으로써 함께 한다는 첫 시작이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관 간 공동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선 관장은 "이번 공동기획 전시를 통해 전북미술사 연구와 전주 관내 미술문화 거점 공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도내 유관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실감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전북예술회관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 접수를 21일까지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임실문화원,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임실문화원이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자연을 사유하는 두 가지 방법' 기획전시를 본원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임실문화원에서 열리는 '자연을 사유하는 두 가지 방법'은 구상과 비구상의 대결형식으로 한국화의 현대화를 위한 작가들의 실험정신과 다채로운 시도를 조명한다.

근대 한국 미술은 해방과 전쟁의 시기를 지나

전통을 계승하거나 서양화 기법을 받아들여 변화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송수남, 송계일을 비롯한 6인의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화의 발전취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획전시이다.

전시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 관람 문의는 전화(063-642-2211)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